

전국 최고 소리꾼들 고흥서 판소리 경연



내달 1~2일 '고흥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 대회' 개최 일반·신인·고령, 초·중·고등부 6개 부문...29일까지 접수

전국 최고의 소리꾼들이 10월 고흥으로 몰려온다. 고흥군은 "고흥이 낳은 국장 김연수 선생을 추모하고, 전통 국악인 발굴육성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제18회 고흥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고흥군이 주최하고, 국악협회 고흥군지부와 동초제 판소리보존회가 주관한다. 판소리 대회는 일반부, 신인부, 고령부, 초·중·고등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눠서 열린 경연이 펼쳐진다.

일반부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시상금 500만원이, 고등부 대상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시상금 100만원이 주어진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인과 학생(해외동포, 교포 포함)으로 일반부 참가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고령부는 65세 이상, 학생부는 초·중·고 재학생으로 재학증명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인부의 경우는 판소리를 전공한 자는 참가 신청할 수 없다. 대회 참가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후 4시까지 한국국악협회 고흥군지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soh8373@hanmail.net) 또는 팩스(061-835-2211)로 접수 가능하다. 한편 주최측인 고흥군은 경연상 외에도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악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를 발굴해 동초 전국 판소리대회와 함께 동초대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전국판소리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국악협회 고흥군지부(061-835-8373)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구례군 치매 예방벽화 그리기 구례군은 최근 전남도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해 치매 예방벽화 그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 치매상담센터에서 추진한 이번 행사는 치매와 우울증에 대해 바로 알고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고흥남포미술관 내일 가을음악회 도장 만들기 체험행사도

고흥군 남포미술관은 "9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7시 남포미술관 야외무대에서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제31보병사단 군악대 초청 공연으로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모듬북 공연과 대중가요, 팝송 메들리 밴드 공연, 클래식 연주 등 풍성한 공연 준비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이날 남포미술관에서는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깊이 있는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큐레이터&에듀케이터의 해설이 있는 미술관'과 창작체험 프로그램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나만의 수제 도장 만들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고흥군 남포미술관장은 "이번 음악회는 남포미술관과 제31보병사단이 그동안 미술품 무상대여 사업인 찾아가는 미술관운영으로 지속적인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성사된 것"이라면서 "문화기관과 군부대의 협업을 통해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아이언키즈 구례 코리아' 성료 전국 최초로 지난 24일 구례군에서 열린 '아이언키즈 구례 코리아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만 5~12세 참가자들이 연령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수영과 달리기 2종목을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볼거리 풍성한 가을축제...곡성으로 오세요

30일부터 4일간 심청축제
내달 1~3일 전남민속축제
곡성군이 다양한 가을축제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제16회 곡성심청축제'와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진강기차마을에서 '효(孝)와 함께 열어나가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16회 곡성심청

축제'를 개최한다. '곡성심청축제'는 축제장을 5개 광장(중앙무대, 장미공원, 잔디광장, 요술랜드, 치치뿌뿌놀이터)으로 나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중앙무대에서는 개막식과 각종 공연 및 심청관,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 등 주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장미공원에서는 곡성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을장미 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동안

'공양미 삼백색 모으기'가 진행되고, 최근 곡성의 명물로 자리잡은 '기차당 떡방마켓'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운영된다. 또 '기차마을 전통시장'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주말장터가 개장한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곡성 문화체육관광 일원에서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가 진행된다. 전남 21개 시·군 34개 팀이 민속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5개 팀의 초청 공연과 일반부 20개 팀, 청소년부 14개 팀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곡성=김계종기자 kkim@

이용부 보성군수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도시가스 개설 등 지역현안 협조 당부

이용부 보성군수가 지역 현안인 보성읍 도시가스 개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용부 군수는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가스 개설과 북내-화순 도로개설 등 지역 현안의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 보성을 도시가스 개설의 경우 1군 1수급지점이라는 한국가스공사의 원칙과 다르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또 북내-화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군수는 보성군 북부지역과 화순군의 주요 소통로인 기존 국도는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또 상수원인 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정차량 통행제한으로 민원도 자주 발생해,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용부 군수는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했던 2개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에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며 "두 개의 현안사업 모두 국가사업으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군 비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사업 확정

2020년까지 90억 들여 조성
보성군은 "특량면 비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성군은 최근 비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보고회와 주민대표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총 90억원을 들여 비봉지구 일대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요 시설로 호박터널, 세죽장, 오토캠핑장, 글램핑, 워터파크, 전망대 등 농어촌체험과 휴식을 병행한 체류형 힐링 공간을 갖춘다.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공원을 조성한다.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성군은 기대했다. 또 인근 비봉공룡공원, 바다낚시공원, 어촌체험장, 해양복합레저단지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도 형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사정상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